

지역경제, LCC의 '상생경영'으로 함께 '훨훨'

(저비용항공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주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과 부산 김해공항에 이어 최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지방공항의 획기적인 활성화' 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거점을 확대했다.

국제선 신규취항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을 제주항공의 새로운 허브공항으로 삼아 신규노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제공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했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물론 신규수요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오사카와 다낭, 방콕 등 3개 노선에 주 14회 정기편 운항을 통해 올해 말까지 500여 편을 운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무안공항의 2개 정기 국제선(중국 베이징, 상하이)에서 출발 기준 193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제주항공 무안공항 활성화 나서

티웨이항공 지역 중심 노선 확대

에어부산 지역 인재 조종사 양성

2.6배 늘어난 수치다.

노선 다변화와 공급석 확대를 통해 호남 지역 여행자의 해외여행 편의가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공격적인 신규취항을 통해 지방공항이 활성화 된 효과는 이미 부산 김해국제공항의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다.

2011년 6월 부산발 대국 방콕노선에 첫 취항한 제주항공은 이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일본 4개 도시와 타이베이, 광, 사이판 등 국제선 정기노선을 11개까지 늘리며 김해공항의 국제선 공



급력을 크게 높였다.

이 같은 노선 다변화의 결과로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2011년 61만4860명에서 지난해에는 105만 2591명으로 약 66% 증가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노선 확대를 펼치고 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면서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대구·제주·부산을 출발하는 국제선까지 총 10개의 노선을 새로 취항했다. 티웨이항공을 이용한 여행객도 자연스레 늘어났다. 지난해 전년보다 30% 늘어난 637만명의 인원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실적적으로 나타났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매출 5840억원·영업이익 471억원을 각각 올렸다.

이는 전년

과 비교해 각각 53%·270%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고 실적이었다.

부산을 거점으로 성장한 에어부산은 영남권 지역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오는 7월부터 영남권 지역의 인재 대상으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은 에어부산이 처음이다.

이번 지역 인재 조종사 양성 제도는 에어부산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원을 선(先) 선발한 후, 두 곳 훈련원의 체계적인 훈련 이수율 통해 직접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총 교육·훈련 기간은 약 2년이며, 이수

조건 및 심사 기준을 충족한 훈련생은 에어부산 수습 조종사원으로 정식 채용된다.

에어부산의 이번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영남권 지역에서 조종사를 꿈꾸는 예비 조종사들의 취업문이 더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들이 대도심권 슬롯 포화 등으로 지방 공항을 통해 국제노선 취항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방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중남미 최대 영화관에 '오닉스' 공급

(시네마 LED)

시네맥스와 스크린 공급계약 체결

삼성전자가 중남미 1, 2위 영화관 사업자와 시네마 LED '오닉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시네맥스 본사에서 멕시코 내 시네맥스 5개 관에 오닉스 스크린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중남미 2위 영화관 사업자인 시네맥스는 올 10월 멕시코 시티 안파라 뿔랑요 쇼

핑몰에 위치한 상영관을 시작으로 5개의 오닉스 상영관을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5000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중남미 1위 영화관 사업자 시네폴리스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남미 영화시장은 매년 전체 스크린 수가 평균 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화관 시설의 첨단화가 유독 두드러진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네맥스와의 계약을 통해 중남미 영화관 체인 1, 2위 사업자와



지난달 27일 시네맥스 본사가 위치한 멕시코 시티의 시네맥스 극장에서 삼성전자 현지 직원들이 삼성 '오닉스' 브랜드를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모두 오닉스 스크린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남미 다른 영화관에도 오닉스

관의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정우영 신임 한국수입차협회장 "수입차 30만 시대 열 것"

제12대 한국수입차협회장(KAIDA)에 오른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사진)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국내 수입차 규모 30만대 시대를 전망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신라스테이 광화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회장은 "수입차 시장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향후 수년 내 수입차 시장이 연간 30만대 판매, 점유율 2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수입차 시장의 3월까지 실적을 보면 목표도 했던 연간 26만5000대 판매가 문제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수입차 업체를 이끄는 메시지로 '공정 경쟁'을 내세웠다. 정 회장은 "수입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전달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축구스타 카카와 '나노셀 TV' 알린다

시아각 강조 동영상 유튜브 게재

LG전자가 세계적인 축구스타 카카와 함께 'LG 슈퍼 울트라HD TV' 시야각을 강조하는 동영상을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LG 슈퍼 울트라HD TV는 LG전자의 프리미엄 LCD TV로, 화면에 적용된 미세 나노 물질이 색표현을 또렷하게 해줘 일명 LG 나노셀 TV로도 불린다.

LG전자는 이 영상에서 카카의 슈팅 게

임을 통해 LG 나노셀 TV와 일반 LCD TV의 시야각 성능 차이를 부각했다.

LG전자는 측면에서 봐도 색 표현이 정확한 LG 나노셀 TV 9대를 3대씩 3열로 쌓아올려 대형 화면을 만들었다. 시야각이 좁아 측면에서 보면 일부 색이 왜곡돼 잘 보이지 않는 일반 LCD TV로도 동일한 비디오를 만들었다.

카카는 비디오를 60도 측면에서 공을 차, 각 화면에 뜬 알파벳을 순서대로 맞춰 주어진 단어를 완성하는 게임을 진행했



다. 카카는 LG 나노셀 TV로 만든 비디오 위에서 게임을 했을 때 원하는 알파벳을 정확히 맞추며 빠르게 임무를 마쳤다.

하지만 일반 LCD TV로 만든 비디오에서는 실수를 연발해 저조한 기록을 냈다. 정면에서 보면 'G'인 글자가 측면에서

보면 색이 흐릿해져 'C'로 보였기 때문.

LG전자가 시야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정면뿐 아니라 측면에서 TV를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스포츠 경기를 보고,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TV를 시청하기도 한다. 측면에서 봤을 때 색재현률, 명암비 등 성능이 떨어진다면, 수년 전 화질 수준의 TV를 시청하는 셈이다.

/정은미 기자

상품성·경제성 UP '2018 엑센트' 출시

현대자동차가 상품성과 경제성을 강화한 '2018 엑센트' (사진)를 2일 출시했다.

4도어 모델인 '엑센트'와 5도어 모델인 '엑센트 위트'로 구성된 2018 엑센트는 내외장 디자인이 바뀌고 4도어 모델에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한 '스마트 스페셜' 트림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스페셜 트림은 ▲인조가죽 시트, 도어 센터트림, 센터 콘솔 등 고급화 내장 ▲블루투스 핸드프리,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등 멀티미디어 사양 ▲미



세먼지 포집 성능을 강화한 마이크로 에어필터 등을 기본 적용했다.

2018 엑센트의 판매가격은 4도어 모델 ▲1.4 가솔린 1159만~1751만원 ▲1.6 디

젤 1469만~2079만원, 5도어 모델 ▲1.4 가솔린 1422만~1766만원 ▲1.6 디젤 1760만~2094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강사: 김민석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